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4년 11월 37권 4호

pISSN 1229-8328
J Korean Med Classics 2024:37(4) 045-061
https://doi.org/10.14369/jkmc.2024.37.4.045

JKMC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 氣口九道脈의 斜診法에 關한 硏究 (I)

## - 陽維脈과 陰維脈의 脉診法 -

[1]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과학 교수, [2]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사학 교수

**황민섭[1] · 이병욱[2] · 김기욱[2] · 윤종화[1*]**

# A Study on the Oblique Pulsation Method in *Qikoujiudaomai* Diagnosis from the Nine Places of the Three-dimensional Division

**Hwang Min Sub[1] · Lee Byung Wook[2] · Kim Ki Wook[2] · Yoon Jong Hwa[1*]**

1 Professor of Dept. Acupuncture & Moxibition,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ersity.

2 Professor of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pathological situation of the Yangweimai and the Yinweimai in the three pulse positions of Cun-Guan-Chi, which is the case of using the *Qikoujiudaomai* diagnostic method to find pathological situations in the Eight Extra Meridians. The correlating pulse taking positions were nine, a three dimensional concept that searches the pulse pattern in diagnosis.

**Methods** : Relevant contents in classical texts such as the *Maijing*(『脈經』), *Qijingbamaikao*(『奇經八脈考』) *Zabingyuanliuxizhu*(『雜病源流犀燭』) *Maiyijianmo*(『脉義簡摩』) were examined, along with previous studies on the topic.

**Results & Conclusions** : Once the pathological Qi overflows in the 12 Meridians, illness happens in the Eight Extra Meridians. In terms of Qikoujiudaomai, the position to diagnosis Yangweimai and the Yinweimai is oblique pulsation at *Cheok* and *Chon* by change to bottom position or surface position in the Qikoujiudaomai Diagnostic Method. Based on the oblique pulse diagnostic method of the Qikoujiudaomai, a more accurate approach to treating illness in the Yangweimai and Yinweimai by means of acupuncture and medicinals is possible.

**Key words** : Eight Extra Meridians(奇經八脈), Qikoujiudaomai diagnosis(氣口九道脈診), Yangweimai, Yinweimai, oblique pulse diagnosis(斜診法).

* Corresponding Author : Yoon Jong Hwa
Professor of Dept. Acupuncture & Moxibition,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ersity.
Tel: 054-770-1254, Fax: 054-770-1500, E-mail: item0220@daum.net
저자들은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 상충도 없습니다.
Received(Oct 23, 2024), Revised(Nov 14, 2024), Accepted(Nov 19, 2024)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Ⅰ. 서론

奇經八脈은 經脈을 별도로 관통하며, 8脈이 스스로 起止하여 전후、상하의 음양과 기혈을 주관하며, 一藏과 一腑와 연계가 없지만 만약 邪氣가 滿溢하여 어그러지고 不和하여 병증이 형성되는데, 奇經의 病脈 역시 氣口의 三部에서 診候할 수 있다.[1)]

즉 기경팔맥은 12정경에 約束되어 있는데,[2)] 12정경은 溝渠로 기경은 湖澤으로 비유되고 서로 관개한다.[3)] 이런 까닭에 奇經의 病證은 정경의 병이 流入되어 발현되며,[4)] 傳經이나 流注에 의한 轉變이 없다.[5)6)]

『난경』에서 기경팔맥에 관한 개념의 논술한 이후 비로소 明代에 이르러 李時珍이 『奇經八脈考』에서 "비록 三部(氣口六部脉診)는 세상에 전하지만 九道는 잠겨져 숨었기에 奇經八脈(氣口九道脉診)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7)]라고 하였는데, 이는 奇經에 축적된 각종 만성병과 난치병을 기구구도맥진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귀중한 논술이다.

六淫이 溢入하여 잠복하는 것은 홍수가 나서 溝渠에서 湖澤으로 유입되는 것에 비유되며,[8)9)] 帶脈과 二蹻, 二維는 정경의 表裏와 縱橫 사이에서 邪氣의 滿溢을 受納한다.[10)] 이런 까닭에서 기경팔맥의 병증은 포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11)]

한편, 人身에는 脂膜이 있어 外로는 경락과 內로는 장부와 연계가 되어 있으며,[12)13)] 陽維脈이 諸陽、陰維脈이 諸陰을 維絡하는 것은 腎의 水火 즉 少陽과 少陰이 성한 후에 腎과 연계되는 三焦(즉 脂膜)을 통하여 내부와 외부에서 그물망(網維)을 형성하고 있다.[14)15)]

---

1) 張璐 著. 張成博, 歐陽兵 点校. 診宗三昧.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2. pp.14-15. "奇經, 爲諸經之別貫經. 經自爲起止, 各司前後上下之陰陽血氣, 不主一藏一府, 隨邪氣之滿溢而爲病, 故脉之發現諸部, 皆乖戾不和, 是古聖以奇字稱之.… 殊異尋常之脉, 便于奇經中求之"

2) 張璐 著. 張成博, 歐陽兵 点校. 診宗三昧.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2. p.15. "奇經又十二經之約束, … 惟是經絡之熱滿, 勢泌溢于奇經, …"

3) 傅山 原著. 傅青主女科新解. 北京. 學苑出版社. 1997. p.6. "黃帶 … 至于**用黃柏清腎中之火也**, 腎與任脈相通而相濟, 解腎中之火, 卽解任脈之熱矣." ; 임상에서 구거와 호택의 이론에 있어 본초를 운용하는 예시로서 구거는 신, 호택은 임맥으로 해석함.

4) 劉吉人 著述. 中國醫學大成(四)·溫病分冊·伏邪新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533. "伏熱 : 陽明伏熱, 與兩厥陰沖任帶三脉合病, 男子疝氣 結核便毒 … 女子天癸不調, 或崩或漏, 或帶下 … 或妄言妄見, 如有鬼神依附狀 … **加減桃仁承氣湯主之.** … 其病根不過陽明伏熱耳, 陽明熱解, 則沖任脉絡血熱自解矣. …"라 하였는데, 임상에서 구거와 호택의 이론에 방제를 운용하는 예시로는 구거는 양명경, 호택은 임맥과 충맥으로 해석함.

5) 李樾 編著. 新校編註醫學入門 上.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179. "奇經病非自生 蓋因諸經溢出而流入之也"

6) 吳有性 原著, 鄭重光補注. 溫疫論補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 "盖溫疫之氣, 邪自口鼻而感, 入于募原, 伏而未發, 不知不覺, 已發之後, 漸加發熱, 脉洪而數"

7)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 1, 109. "… 八脉散在郡書者, 略而不悉. … 參考諸說, 萃集于左, … 三部雖傳, 而九道淪隱, 故奇經八脈, 世無認知 …"

8) 葉霖 著. 吳考槃 点校.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p.46-47. "… 圖設溝渠, 通利水道, 以備不然. 天下降下, 溝渠溢滿, 當此之時, 滂霈妄行 … 流于深湖 …"

9) 葉子雨 撰著. 中國醫學大成(四)·溫病分冊·伏氣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499. "『伏氣解提要』 … 感之不卽病者, 乃藏于經脉臟腑之間, 而爲伏氣之病也."이라 하였는데, 육음(六淫)이 일입(溢入)하여 상한의 즉병(卽病)과 하지에 잠복하는 하초복한(下焦伏寒), 온병의 즉병과 잠복해 있는 사기(伏邪)는 홍수가 나서 溝渠(강물)가 넘치면(滿溢) 深湖로 흘러 들어(流入)간다는 『난경·이십칠난』에 수록된 기경팔맥의 醫論과 상통한다.

10)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脈簡補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71. "… 帶脈與二蹻, 二維, 則縱橫表裏于十二經之間, 以受十二經之滿溢者也."

11) 葉霖 著. 吳考槃 点校.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p.46-47. "… 冲之爲病, 氣逆而裏急. 督之爲病, 脊强而厥. 任之爲病, 苦結, 男子爲七疝, 女子爲瘕聚. …"

12) 王士雄. 溫熱經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34. "膜原者, 外通肌肉, 內近胃腑, 卽三焦之門戶, 實一身之半表半裏也 ; **外經絡, 內臟腑, 膜原其中,** 爲內外交界之地. … 膜原者, 人脂內之膜也 …"

13) 襲莊元 輯. 熊笏 著. 三三醫書·卷二·中風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737. "「論衛氣」 : 衛氣又名人氣以其綱維群動, 爲知覺運動者也, 又名陽氣, 以其溫陽一身也 … **衛氣之根. 根在于腎, 『難經』稱謂腎間動氣**, 後世稱爲丹田眞陽. 卽此衛氣. … 其一曰, 間行于六腑則水谷化. 從下焦以上合于宗氣, 應于胃則主納, 應于膽則主決, 應于小腸則主腐化, 應于大腸則主傳導, 應于膀胱則主滲利.總以名之, 則曰三焦, 所以行津化液也. 凡大小二便之開合, 皆三焦衛氣之所司. **『難經』謂之原氣**"

14) 葉霖 著. 吳考槃 点校.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p.50-54. "陽維陰維者, 維絡于身, 溢畜不能環

그런데 기경팔맥은 腎과 肝에 隸屬되어 少腹의 下焦에 중점이 있는데,[16][17] 음·양유맥도 '腎間動氣'에 뿌리를 두고 人身의 상하、표리로 양기인 衛氣를 운행하여[18][19] 유속(維續: 연결기능), 호위(護衛: 방어기능), 포거(包擧: 입체적 공간의 확장 즉 저장기능)의 작용을 한다.[20][21]

기경의 병증은 원기와 의식(神)이 손상되는 증상을 동반한다.[22] 또한 축적되어 유동하지 않는 內傷雜病의 苦寒熱을 동반하는 질환은 양유맥으로、苦心腹痛을 동반하는 질환은 음유맥으로 歸屬되는데,[23][24][25] 이같이 양유맥과 음유맥의 병증은 범위가 넓은 증후군으로 설정되어 있다.[26]

한편, 연구 배경의 논문으로는 연구자는 기구구도맥에 관한 연구,[27][28][29] 대맥의 병증,[30] 기구구도맥의 활용,[31] 음·양유맥 경혈의 주치증[32] 및 醫案을 통한 維脉에 관한 연구[33]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였다.

또한 奇經脉狀에 관한 연구로는 대맥의 탄(彈),[34] 음·양교맥의 좌우탄(左右彈)과 위기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35] 임·독·충맥의 맥상[36] 및 양교·대·음교맥의 맥상에 관한 연구[37]를 진행하여 학계에 논문으로

流灌溉諸經者也. 故陽維起于諸陽會也, 陰維起于諸陰交也 … 然而能爲維者, 必從乎陰陽之根柢, 具盛氣之發, 而後能維"

15) 唐容川. 唐容川醫學全書·中西滙通醫經精義. 北京. 中國中醫學出版社. 2002. p.13. "命門爲三焦膜油發源之所, 故命門相火布于三焦, 焦則油膜也. … 腎靠脊而生, 有膏油遮掩, 附腎有薄膜包裹, **西醫名爲腎衣**, 此衣發于腎系, 乃**三焦之原**也 …"

16)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p.131-132.「八脉隸乎肝腎」

17) 黃英志 主編. 葉天士醫學全書·臨證指南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287. "郭(二四) 産後下元陰分先傷, 而奇經八脈皆麗于下, 肝腎怯不固, 八脉咸失職司, 經旨謂陽維脈苦寒熱, 陰維脉苦心痛. 下損及胃, 食物日減 …"

18) 羅東逸 著. 龔慶元 輯. 珍本醫書集成·內經博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p.57. "… 是二維者. 雖有經絡之別, … 二維之病在絡, 而實亦在氣. 盖有本陽本陰有衰耗之氣, 則必至總見于諸陽諸陰. …"

19) 周孔四 著, 余茂基 注釋. 周氏經絡大全注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8. p.365. "互冲, 蹻, 運水谷, 不得不連水, 土. 二維必連水, 土, 非水, 土何以生化? **要之皆陽氣運之**, 可以知生氣矣."

20) 黃英志 主編. 葉天士醫學全書·臨證指南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33. "范(二一) … 卽內經陽維脈衰, 不司**維續護衛包擧**. 下部無力, 有精血不充涵筋骨矣. 此下元之損, 必累八脉, 此醫藥徒補無用."

21) 葉霖 著. 吳考槃 点校.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14. "「第八難」 … 諸十二經者, 皆系于生氣之原. 所謂生氣之原者, 謂十二經之根本也, 謂腎間動氣也. 此五臟六腑之本, 十二經之根, 呼吸之門, 三焦之原, 一名守邪之神, 故氣者, 人之根本也 …"

22) 羅東逸 著. 龔慶元 輯. 珍本醫書集成·內經博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pp.55-56. "… 奇病之作, 必變于元氣神機之失 …"

23) 羅東逸 著. 龔慶元 輯. 珍本醫書集成·內經博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pp.55-56. "… 奇恒者. 言奇病也. … 轉者, 流動也. 回者, 逆曲也 … 于是岐伯又設奇恒一門, 以度奇病 … 俱從雲氣臟腑經絡而外, 占其病之厥逆錯雜, 所以回則不轉, 乃失其機者. 此開後世內傷雜證之大經大法也 …"

24) 黃英志 主編. 葉天士醫學全書·葉天士晚年方案眞本.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955. "卒然**心痛寒熱**, 恰在産後, 卽內經所謂陽維病苦寒熱, 陰維爲病苦心痛. 維主一身之綱維, 其陽行衛, 其陰行營, 二脉致偏, 不饑少納, 腹脹下聚泄瀉, 下月經必先期. 秋冬下焦常冷."

25) 楊繼州 著. 鍼灸大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8. p.217-219, pp.211-214. "「卷五·八脉圖竝治症穴·陰維脉·陽維脉」의 조문에는 『난경·29난』의 포괄적인 二維脉病症의 구체적인 증상과 범위, 八脉交會八穴과 隨症配穴法이 기재되어 있다.

26) 葉霖 著. 吳考槃 点校.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51. "陽維爲病苦寒熱, 陰維爲病苦心痛"

27) 황정일, 이준범, 황민섭, 윤종화. 奇經八脈의 진단법인 氣口九道脈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5. 22(4). pp.165-178.

28) 于志亮, 楊碩, 楊孝芳. "氣口九道脈"的溯源初探. 中西醫結合心血管病雜誌. 2018. 6(34). p.27.

29) 양승정, 진천식, 조명래. 대맥 및 그 유주상 회합하는 경혈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1. 18(1). pp.105-116.

30) 呂致君, 許軍峰. 近10年帶脈臨床應用研究進展. 湖南中醫雜誌. 2021. 37(4). pp.187-189.

31) 成振鏞, 李曉君, 郭霞珍. 奇經脈診法初探. 北京中醫藥大學學報(中醫臨床版). 2010. 17(6). pp 24-26.

32) 박찬열, 안병철, 최도영. 陰, 陽蹻脈과 陰, 陽維脈各經穴의 主治病症에 對한 文獻的 考察. 대한침구학회지. 1995. 12(2). pp.287-315.

33) 윤기령, 백유상, 장우창, 정창현. 維脉의 개념과 임상 활용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9. 32(1). pp.152-154.

34) 박건우, 황민섭, 윤종화. 奇經八脈의 脈診法인 氣口九道脈에 나타난 彈脉의 의미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2. 35(1). pp.33-42.

35) 박건우, 황민섭. 윤종화. 氣口九道脉에서 寸部와 尺部에서 나타나는 左右彈脉에 關한 硏究. 한국의사학회지. 36(1). 2023. pp.11-21.

36) 이병욱, 윤홍걸, 황수경, 김기욱, 박건우, 황민섭, 윤종화. 氣口九道脈診에 임맥, 독맥, 충맥의 맥상에 관한 연구. 대한원전학회지. 2024. 37(2). pp.31-48.

37) 황수경, 이병욱, 황민섭, 김기욱, 윤종화. 氣口九道脈에서

보고하였다.

『脈訣彙辯』에서도 언급된 斜診法과,[38] 『素問·陰陽別論』에서 "陰陽結斜, 多陰少陽"의 문장에서 언급된 結斜에 대하여 周[39]는 사진법(斜診法)으로 해석하였는데, 연구자 역시 기구구도맥진에 있어 양유맥의 사상(斜上)、음유맥의 사하(斜下)의 斜診法에 대하여 고찰한 바를 아래에서 보고하고자 한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연구자는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에 기구구도맥(氣口九道脉)의 사진법(斜診法)에 근거한 침약일원(鍼藥一源)의 치료방통(治療旁通)에 관한 고찰을 보고하길 희망한다.

## Ⅱ. 본론

### 1. 斜診法

사진(斜診)[40]은 『소문·음양별론(陰陽別論)』에서 "陰陽結斜, 多陰少陽曰石水, 少腹腫"라 하여 結斜를 기술하고 있으며, 周는 "역대의 주가(注家)들은 '陰陽結斜'의 의의(意義)를 알지 못하였고, 斜診으로 주석한 사람이 없었다."[41]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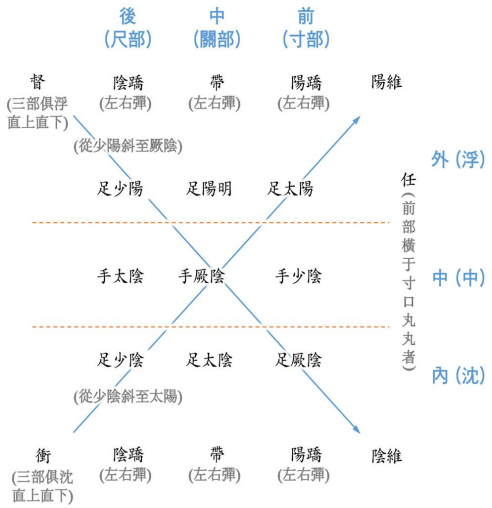



**그림 1. 『脈經·卷十·手檢圖』기구맥 삼부구후의 구도에 경락의 배속, 기경팔맥의 맥진 부위 및 맥진 방법의 입체도**

또한 『소문·맥요정미론(脉要精微論)』에서 "推而外之, 內而不外, 有心腹積 ; 推而內之, 外而不內, 身有熱也."의 外는 맥의 방향이 수태음경의 어제혈로 가지 않고, 수양명대장경의 합곡혈 방향으로 맥의 방향이 변화하는 것이며, 內는 수궐음심포경의 노궁혈 방향으로 맥의 방향이 변화하는 것이다.[42] … 外는 外曲, 內는 內曲이라 한다."라고 하였다.[43][44]

또한, 『脉簡補義』에서 "陰陽結斜, 多陰少陽, … 尺寸脉緊澁而傾斜, **其義亦可通**, … 浮少沈多, …" 라 하였다. 이는 尺의 浮按에 緊脉, 寸의 沈按에 澁脉의 斜診 혹 手少陰經에 근접하는 맥체의 방향이 변동하는 內曲 등 二種類의 의미가 모두 상통한다고 하여 『소문·음양별론』에서 "陰陽結斜"의 사진(斜診)

양교맥, 대맥, 음교맥의 맥상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방제회지. 2024. 32(2). pp.193-201.

38) 李延昰 輯著. 脈訣彙辯.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106. "尺外斜上, 至寸陰維, 尺內斜上, 至寸陽維"

39)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脉簡補議·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581-582. "「脉有內曲外曲」: … '陰陽別論' 曰 ; 陰陽結斜, 多陰少陽, 曰 石水, 少腹腫. **向來注者, 罔知斜曲之義.**"

40) 斜診 (비스듬히 진맥) : 촌, 관, 척부에서 24 맥을 단부(單部)에서 살피지 않고, (그림1)의 화살표 방향으로 척(尺)의 침안(沈按)에서 촌(寸)의 부안(浮按)으로 비스듬히(斜) 진맥하는 사상진(斜上診), 척(尺)의 부안(浮按)에서 촌(寸)의 침안(沈按)으로 비스듬히 진맥하는 사하진(斜下診)이 있다. 사진법은 인신의 신간동기(腎間動氣 즉 신의 수화)의 소양(⚌)과 소음(⚍)이 발휘되는 상하, 내외와 표리의 병리적 상황을 진단하는 맥진법이다.

41)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脉簡補議·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581-582. "「脉有內曲外曲」: … '陰陽別論' 曰 ; 陰陽結斜, 多陰少陽, 曰 石水, 少腹腫. **向來注者, 罔知斜曲之義.** 夫結者, 堅而澁也; 斜者, 如弓之曲也. 多陰少陽者, 謂其斜弓曲向內, 近于少陰而遠于陽明也. 石水, 少腹腫, 是謂單腹脹, 卽**心腹寒積**之類也."

42)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脉簡補議·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46, 581. "「三關脉体考」: 反關脉, 飛斜脉, 飛外脉, 又脉, 双弦"

43)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脉義簡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48. "「脉有內曲外曲」; … 是正氣虛則內曲, 邪氣實則外曲也 … 大抵脉之曲者, 皆因于積, 而又中氣虛也"

44)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脉簡補議·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82. "「脉有內曲外曲」:『扁鵲脉法』曰 ; 外句者, 久癖也. ; 內卷者, 日而還, 是又以內曲外曲, 分食積之新舊也."

에 二種類의 맥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45][46]

그리고, 역대의 맥진 의적과 현대의 기경팔맥을 서술하고 기구구도맥을 논한 서적에서 음·양유맥의 맥진 방법과 맥상에 관한 서술을 보면, 맥체의 방향이 변화는 내·외곡(內·外曲) 및 24脉의 부맥, 침맥보다 피부에 근접하는 浮脈과 골부에 근접하는 沈脈의 이(二) 종류를 음양유맥의 맥상으로 기술한 醫籍은 없었다.[47]

그러나, 『古法新解會元鍼灸學』의 「目次」에는 기구구도맥에 관한 제목이 없다. 「奇經八脉所交會各經起止」에서 양유맥은 左寸外斜[48] 혹 寸浮尺弱[49]의 맥상이, 음유맥은 右寸裏斜[50] 혹 寸弱尺盛[51]한 2종류를 기본 맥상으로 전재(全載)하였다.[52]

45)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脉簡補議·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48. "「脉有俯仰」: … '陰陽別論' 曰 ; **陰陽結斜, 多陰少陽**, 其義亦可通, 此爲**尺寸脉緊澁而傾斜**, 前仰後俯, 浮少沈多, 所謂肝腎幷沈爲石水也."

46) 沈金鰲 撰. 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p.8-9. "阳维 환자 좌수 : 양유맥은 患者의 左手를 기준하여 魚際穴 방향에서 食指의 수양명경 방향으로 맥의 방향이 변화함(육음 중 熱이 주원인), 阴维 환자 우수 : 患者의 右手를 기준하여 수궐음경의 勞宮穴 방향으로 맥의 방향이 변화함(육음 중 寒이 주원인)"이며, 『雜病源流犀燭·附載奇經八脉』에는 甚浮나 甚沈한 맥상의 그림(圖)은 없다.

47) 침구학 서적에서는 氣口九道脉에 관하여 서술한 醫籍을 찾을 수는 없었다. 명대 오곤의 『鍼方六集·旁通集』에는 기경팔맥의 치료에 있어 팔맥교회혈의 침과 방제의 원리가 동일함을 밝히고, 침구와 방제를 동시에 사용하였다. 또한 『脉語·奇經脉法·手檢圖脉法』에서 「手檢圖」의 맥진법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아 기경팔맥의 치료에 기구구도맥을 운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8) 左寸外斜 : 患者의 左手를 기준하여 어제 방향에서 식지의 수양명경 방향으로 맥체의 방향이 변화한다는 의미.

49) 寸浮尺弱 : 일반적인 '擧之有餘 按之不足' 하는 부맥과는 차이가 있는 촌부에서 피부에 근접하는 부맥.

50) 右寸裏斜 : 患者의 右手를 기준하여 수궐음경의 노궁혈 또는 수소음의 소부혈 방향으로 맥체의 방향이 변화한다는 의미.

51) 寸弱尺盛 : 촌부에서 근골에 근접하는 침한 맥상 : 弱은 이십사맥의 弱脉과는 차이가 있는 근하골상(筋下骨上)의 伏脉과 유사한 沈弱에 가까운 맥상

52) 焦會元 編輯. 古法新解會元鍼灸學. 北京. 泰山堂書莊. 中華民國二十六年. p.133, pp.138-139.

## 2. 氣口九道脉[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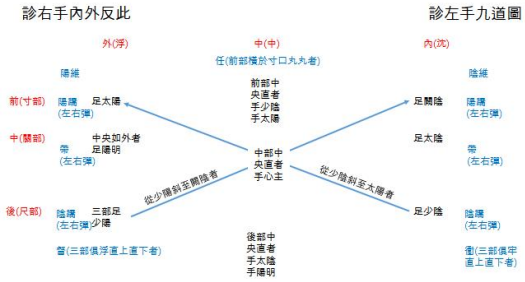



**그림 2. 『기경팔맥고』: 기구맥의 구도에서 경락배속 및 맥진의 부위 및 방법의 평면도[54]**

手腕의 氣口脉을 九道로 구분하는 맥진은 『난경·26난』에서 명칭을, 『난경·18난』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55] 『맥경』 권10 「手檢圖」에 있는 氣口九道脉의 맥진은 九道에 정경과 기경을 배속하여 사기(邪氣)의 소재를 찾는 맥진법이며, 『맥경』 권4 「辨三部九候脉証第一」에서 三部九候는 발병의 장소를 찾는 맥진법으로 기술하고 있다.[56]

기구구도맥(氣口九道脉)은 기구일맥(氣口一脈)을 구도(九道)로 나누어 이용함으로써 기경을 진단하고, 정경 또한 진단할 수 있다.[57] 구도의 구분은 평면과 입체적인 방법이 있으며,[58] 『醫碥』에서 前은 寸部、

53) 기구맥의 촌, 관. 척부를 다시 각부마다 상, 중, 하안(按)으로 구분한 구도에 경락을 배속하여서 맥진을 하는 방법 ; 기구맥에서 부안, 침안으로 구분하는 기구육부맥과 경락의 배속에서 차이가 있음.

54)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脉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p.109-113. 『기경팔맥고』에서 『맥경』권사, 권십의 이편이 「기구구도맥」으로 편재된 것에 의거하여 도(圖)를 첨부함.

55) 葉霖 著. 吳考槃 点校.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28, 33.

56) 王叔和 著. 福州市人民病院 校釋.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144. "經言 ; 所謂三部者, 寸關尺也. 九候者, 每部中有天人地也 … 所以別三部九候, 知病之所起, 察而明之, 鍼灸亦然也. …"

57) 王肯堂 著. 陸拯 主編. 王肯堂醫學全書·醫學窮源集卷二.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641.

58)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脈義簡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19. "「前後上下內外左右」: … 是必脉形扁闊, 或脉兩條, 則可也. 夫以指平壓脉上, 誠不能內外兩判也. 獨不可側其指, 以拍于脉之內側外側

中은 關部、後는 尺部로 보고, 寸、關、尺을 上、中、下로 나누어 九道를 구성하고, 外는 浮按으로、內는 沈按으로 보았고, 內、外를 浮、沈의 입체적인 구분법으로 설명하고 있다.[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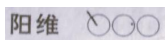
그리고 양유맥의 사상(斜上), 음유맥의 사하(斜下) 등의 사진(斜診)과 고대의 실전(失傳)된 맥법(脉法)은 부안(浮按), 침안(沈按)의 입체로 구분하고 있다.[60] 이는 평면 구분법보다 입체 구분법이 기구구도맥의 운용에 있어서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된다.[61]

즉 氣口의 三部九候에서 구도(九道)가 사상(斜上)、사하(斜下)함은 尺部 浮按의 족소양에서 寸部의 沈按으로 족궐음까지 斜下(尺의 浮按에서 寸의 沈按으로 斜診)하면 陰維脈의 맥진이며, 尺部 沈按의 족소음에서 寸部 浮按의 족태양까지 斜上(尺의 沈按에서 寸의 浮按으로 斜診)하면 陽維脈의 맥진법이다.[62] (그림1. 참조)

한편, 『脉簡補義·脉法失傳論』에서 "『맥경』 권10 「수검도」에서 九道의 法 즉 구후(九候)에 足三陽과 手足三陰을 배속하고, 手三陽의 배속이 없는 방법은 상법(常法)과는 특별한 차이가 있으며 … 이는 古代의 失傳된 脉法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였다.[63]

**1) 陽維脈의 斜上診**

外曲(맥체가 밖으로 굽음)은 수양명 방향으로 맥의 방향이 변화, 甚浮는 일반적인 浮脉보다 피부 근방에서 느껴지는 더욱더 浮한 맥상.[64]



外曲, 甚浮

(환자의 左手를 기준)[65]

**『雜病源流犀燭』:『脉經』曰 ; 寸口脉從少陰斜至太陽, 是陽維脉也. … 從寸部斜之外者.**[66]

**『脈訣彙辯』曰 ; 尺內斜上, 至寸陽維**[67]

양유맥은 표부의 **皮膚之氣**를 주관하며, 혈기가 성(盛)하면 쌓이는 것이 진행(蓄進)되는 상황에서 허(虛)하면 일출(溢出)하여 십이경맥의 순환을 유지하고 환주의 유주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다.[68]

---

以診之耶? 外側之診, 如浮候同. 內側之診, 與沈候同. …"

59) 何夢瑤 撰. 鄧鐵濤 劉紀莎 點校. 醫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p.507-511. "「奇經八脈診法」: … 前部, 寸也. 外謂浮候. 內者, 沈候 … 中部, 關也. … 後部. 尺也 … 『素問·脉要精微論』不同, 殊無理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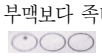
60)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脈簡補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87. "「脉法失傳」: … 倉公分界之法, … 又有關前爲陽, 浮曰一陽, 中曰二陽, 沈曰三陽. 關後爲陰, 浮曰一陰, 中曰二陰, 沈曰三陰. 又有寸爲一, 浮曰一陽, 沈曰一陰; 關爲二, 浮曰二陽, 沈曰二陰; 尺爲三, 浮曰三陽, 沈曰三陰. 其曰三陰急者, 沈候之三部俱急也. 二陽結, 浮候之前二部俱結也. 一陰一陽結者 寸部之浮沈皆結也. …"

61) 按과 候 : 按이 맥진에서 진대의 저작인 『맥경·권일·맥형상지하비결제일』에서 부맥, 현맥, 침맥 등에서 按을 사용한 이후 송, 명, 청대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명사이다. 그리고 候는 漢代에 『소문·삼부구후론』의 구후의 칠진(七診)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의미는 동일하지만 일반적으로 기구의 삼부를 진맥할 때는 候 (살필 후) 보다 按(누를 안, 살필 안)이 합당함.

62)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脉簡補議·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582-583. 촌구맥의 구도에서 양유맥, 음유맥의 맥진방법을 예시하는 것이며, 촌관척부의 상중하안에 경락의 배속에 따른 음양유맥의 맥진법을 설명.

63)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 脈簡補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86. "「脉法失傳論」"

64)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脉義簡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82. "張石頑診趙明遠曰 ; 左手三部, 弦大而堅, 從人迎斜內向寸, 是謂**三陽經滿溢**. 入陽維之脈也, 當有顚仆不仁之虞. 所謂**斜內向寸者, 必先外越, 乃折而來向上寸也. 三陽滿溢,** 卽 『內經』身熱之類也" : 인영은 좌인영, 우기구의 내외인을 구분하는 좌우수의 인영촌구맥진의 인영으로 해석함.

65) 熱邪가 삼양경에 잠복(伏邪)하면 폐에서 발휘되는 위기가 흘러넘치는 일반적인 부맥보다 족태양의 피부로 기혈이 흘러넘치는 부맥(甚浮)  이 나타나고, 양명경에 사기가 울체되면 기구구도맥의 족양명경이 배속되는 關部에서 열사가 수양명경 (대장에 울체된 열사가 항부의 천정, 부돌혈 등을 통하여 두부로 침습) 으로 흘러 들어가는 상황은 어제혈로 흐르는 정상적인 맥체가 수양명경의 합곡혈 쪽으로 맥체의 방향이 바뀌는 外曲(밖으로 굽음)의 맥형상

으로 나타남.

66) 沈金鰲 撰. 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8, 171.

67) 李延昰 輯著. 脈訣彙辯.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106.

68)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24. "陽維脈의 諸陽會는 頭,

한편, 인신의 지막(脂膜)은 외로 경락과 내로는 장부와 연계가 되어 있고, 내외의 사기는 막원(膜原)을 通하여 외에서 내로, 내에서 외로 도달하고[69], 四時의 상한과 온병의 사기와 복사(伏邪)는 모두 막원으로 귀속한다.[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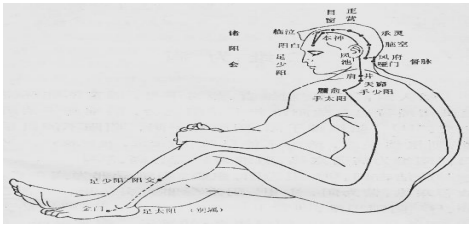


**그림3. 양유맥**

양유맥은 少陰에서 太陽에 이르며, 족태양의 金門에서 발하여 … 수족소양양명의 오맥이 陽白에서 교회하고, 風府, 瘂門에서 독맥과 교회하며,[71] 교회혈(交會穴)은 지막으로 장부와 연계가 되어 있으며,[72] 脂膜은 육음의 사기가 내외로 전달되는 통로이다.

陽維脈이 모든 양(諸陽)을, 陰維脉이 모든 음(諸陰)을 이어서 연락(維絡)하는 것은 음양의 뿌리(根柢)인 양신(兩腎)에 있으며, 腎의 水火 즉 少陽과 少陰이 성(盛)한 후에 유락(維絡)의 작용을 수행한다.[73][74]

腎의 少陰(火中之陰 ; ☲ 離卦, 物象 : 수증기 등)이 삼초(三焦)의 기능을 발휘(發揮)하게 하여 膻과 肺에 溫暖한 和氣를 공급한다. 담(膻)은 골(骨)의 양기(陽氣)와 연계하여 관절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肺主氣(治節)를 통하여 삼양경의 위기(衛氣)의 순행을 보좌한다. 만약, 사기가 한열(寒熱)을 조절하는 양유맥과 연계되면 고한열(苦寒熱)이 포함된 증후군의 병증이 형성된다.[75][76]

『난경·28난』에서 양유맥의 병증은 한열에 의한 증상이라 하였고, 태양(太陽)이 아래(下)에서 쇠약(衰)하여 승등(升騰)의 화기(和氣)가 기능에 이상(失調)으로 소양(少陽)에서 먼저 보이며 한열(寒熱)로 인한 병증이 나타난다.[77] 그리고, 육경에 만일(滿溢)하는 사기는 내부가 虛하면 기경으로 일입(溢入)한다.[78][79]

---

肩部의 交會穴을 말하며, 陽維는 循環에 參與하지 않고 溢築하여 盛衰를 調節만 한다. … 維脉的分布竝不具上下環周的流注關係 …"

69) 王士雄. 溫熱經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34. "外經絡, 內臟腑, 膜原其中, 宜內外交界之地. … 膜原者, 外通肌肉, 內近胃腑, 卽三焦之門戶, 實一身之半表半裏也. 邪有上受, 直趨中道, 故病多歸膜原 … 則膜原乃人脂內之膜也 … 若云在內之邪, 必由膜原達外 ; 在外之邪, 必由膜原入內則似矣."

70)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讀醫隨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81. "**伏邪皆在膜原** : … 四時之傷, 伏氣爲病, 皆伏于膜原也 …"

71)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24.

72) 焦會元 編輯. 古法新解會元鍼灸學. 北京. 泰山堂書莊. 中華民國二十六年. pp.138-139. "… 陽交穴. 斜屬三陽. … 居髎穴連繫帶脈 … 下額角與手足少陽, 手足陽明, 陽維五脈之會目上直眉上一寸. 陽白穴 … 內部臟腑衣膜貫通相維. 外部絡交脂膜包裹筋骨相維交會. 所擧數穴. 皆經臟腑絡, 陰陽精氣. 換通之要處也"

73) 黃英志 主編. 葉天士醫學全書·種福堂公選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361. "「濕 ; 濕傷陽氣」吳五十二 ; 平昔飮酒, 夏令在受地濕之感, 內外濕邪傷陽, 沮遏氣機流行, 遂致一身盡腫. 鍼刺出水, 梢瘜復腫, 皆由陽氣其衰, 水濕無以分逐. 苟非其雄通陽, 陰凝何以走泄 ? 所復八味湯, 倦溫照腎陽, 與陽維不合. …"

74) 腎의 水火 즉 소음과 소양은 육경의 소음경과 소양경이 아니며, 사상의 소양과 소음으로 생각된다. 이는 음양의 冲和之氣인 중맥의 유주노선 중에서 신기의 성쇠에 따라 氣衝(氣街)혈에서 족소음경을 따라 하행하여 하지로 내려오는 노선에서 발휘(發揮)된다(『영추·역순비척』)

75) 羅東逸 著. 龔慶元 輯. 珍本醫書集成·內經博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p.38. "… 膽列中正之官, 決斷出焉 … 經曰; **少陽連腎, 腎上連于肺.** 夫少陽起于夜半之子, 爲腎之天根, 其氣上升, 以應肺之治節, 是所謂中和, **極通之上下, 故得遊行于三焦,** 而卽三焦之所治, 以致用于陽明 … 是**爲膽之爲用, 能起九地, 而升其地德, 亦能出三陽** … 其体則獨居于淸靜之腑, 以冲和之氣, 溫養諸臟, 故有中正之目也."

76) 劉孔藤 主編, 陸汎, 周然密, 錢小蓮 編者. 經絡辨證概論. 廈門. 廈門大學出版社. 1988. pp.111-113. "奇經爲病, 膽之症候, 病在陽維脉", 『靈樞·經脉』 "**膽足少陽之脉** … 是動則病 … **陽厥**. 是主骨所生病者 … ."

77) 羅東逸 著. 龔慶元 輯. 珍本醫書集成·內經博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p.57. "… 是以陽維爲病, 必太陽衰于下, 失升騰之和氣, 而先見于少陽, 故苦寒熱 …"

78) 黃英志 主編. 葉天士醫學全書·臨證指南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289. "某 ; 産後十年有餘, 病發必斗垂脊痛, 椎尼氣墜, 心痛冷汗. 此督, 任氣乖, 蹻, 維皆不用, 是五液全涸 …"

79) 黃英志 主編. 葉天士醫學全書·臨證指南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293. "孔 ; 形外寒凜凜, 忽然轟熱, 腰膝墜脹, 帶下汗出. 由半産下焦之損, 致八脉失其擁護, 少腹不和. 通攝脉絡治之. …"

만약, 양유맥으로 만일(滿溢)하면 기구의 구도에서 족소음이 배속되는 尺沈按에서 족태양이 배속되는 寸浮按으로 진후하는 斜上診에서 양유맥의 병리적 상황을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기구구도맥의 寸에는 복부의 내부에 熱結이 원인이 되면 수양명경의 합곡혈 방향으로 맥이 변화는 외곡(外曲) 혹 신체에서 양다음소(陽多陰少)가 되면 족태양이 배속되는 寸의 浮按에서 평상의 浮脉보다 더욱더 浮한 피부에서 느껴지는 甚浮한 맥상이 나타나는데,[80] 焦[81]는 左寸外斜 혹 寸浮尺弱한 맥상을 양유맥의 기본 맥상으로 인식하였다.

### 2) 陰維脈의 斜下診

內曲(맥체가 내부로 굽음)은 수궐음 방향으로 맥의 방향이 변화, 甚沈은 일반적인 沈脉보다 筋下骨上부에서 느껴지는 더욱더 沈한 맥상.

阴维 ○○○ **內曲**,[82] ○○○ **甚沈**.[83]

(환자의 右手를 기준)[84]

**『雜病源流犀燭』:『脉經』曰 ; 寸口脉從少陽斜至厥陰, 是陰維脉也. … 從寸部斜之內者.**[85]

**『脈訣彙辯』曰 ; 尺外斜上, 至寸陰維.**[86]

음유맥은 내부(裏)의 **지막(脂膜)의 氣**를 주관하며, 혈기가 성(盛)하면 축진(蓄進)하고, 허(虛)하면 일출(溢出)하여 십이경맥의 순환을 유지하고, 환주(環周)의 유주(流注)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다.[87]

그리고, 양유맥이 모든 양(諸陽)을, 음유맥이 모든 음(諸陰)을 이어서 연결(維絡)하는 것은 음양의 뿌리(根柢)인 양신(兩腎)에 있으며, 신의 수화(水火) 즉 少陽과 少陰이 성한 후에 모든 음과 양을 이어서 연결하는 작용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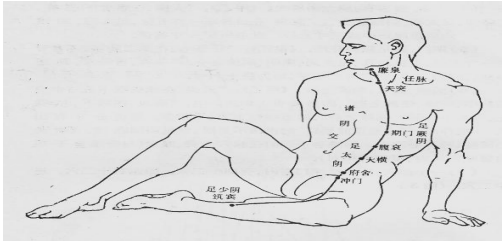



**그림4. 음유맥**

한편, 인신의 지막(脂膜)은 외로 경락과 내로는

80)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脉簡補議·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81. "「脉有內曲外曲」: 熱鼓之, 則脉形外曲"

81) 焦會元 編輯. 古法新解會元鍼灸學. 北京. 泰山堂書莊. 中華民國二十六年. pp.138-139.

82) 동국대학교 경주한방병원 침구과의 2023년. 陰維脈의 內曲하는 脉狀의 醫案. 00067239 노모모 (39) 여, 00011974 김모모 (69) 남: 소음인 남·녀의 少腹에 冷積이 있고,『雜病源流犀燭』에서는 '從寸部斜之內者'의 수궐음 방향으로 內曲하는 맥형상이 出 : 방제는『四象新編』의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의 吳茱萸附子理中湯 60첩을 투여를 하였고, 자침은 八脉交會八穴의 陰維脈의 內關, 主客의 衝脈의 公孫, 衝脈脉氣가 所發하는 大赫, 肓俞, 幽門 등에 刺鍼時에 항상 內曲이 解消되고, 수태음의 어제 方向의 정상맥이 出하는 것을 맥진으로 확인.

83) 吳鞠通. 吳鞠通醫學全書·溫病條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9. "「下焦篇 十四」: 下焦溫病, 熱深厥甚, 脉細促, 心中澹澹大動, 甚則心中痛者, … 甚則痛者, 陰維爲病主心痛, 此證熱久傷陰, **八脉屬于肝腎, 肝腎虛而累及陰維, 故心痛** … .": 세맥와 촉맥은 七表八裏九道脉에서 九道에 속하고, 八裏에 속하는 微는 細와 동류로서 양기가 쇠잔한 상황을 묘사하는 맥상이다. 맥세촉은 침안에서 볼 수 있는 맥상으로 음혈이 적은 상태에서 영혈이 쇠약한 흐름(세)에서 양기가 순간 순간 드러나는 쇠잔한 상태(촉)를 표현한 맥상.

84) 寒邪가 간과 간경에 잠복(伏邪)하면 기문혈에서 지막으로 연결되는 천돌, 염천혈까지 기혈이 순행하지 못하여 기구구도맥에서 족궐음이 배속되는 촌의 상중하의 하부에서 이십사맥의 침맥보다 더욱더 더 침한 맥상 ○○○ 즉 복맥(伏者, 脉行筋下也.『난경정의·십팔난 ; 주』)에 가까운 맥상이 나타난다. 또, 심포에 한사의 울체가 심하여 영혈이 정상적인 순환이 이루어지는 않는 상황이 되면 영혈이 심폐로 순행하지 않고 충맥으로 하행하는 상황은 수궐음 방향으로 맥의 방향이 변화하는 내곡(내부로 굽음)의 맥형상 阴维 ○○○ 이 나탄난다.

85) 沈金鰲 撰. 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8, 171.

86) 李延昰 輯著. 脈訣彙辯.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1991. p.106.

87)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脉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24. "陰維脈의 諸陰交는 腹部의 交會穴을 말하며, 陰維는 循環에 參與하지 않고 溢築하여 盛衰를 調節만 한다. … 維脉的分布竝不具上下環周的流注

장부와 연계가 되어 있고, 내외의 사기는 막원(膜原)을 통하여 외는 내로, 내에서 외로 도달한다.[88] 그리고 四時의 상한과 온병의 사기와 복사는 모두 막원(膜原)으로 귀속한다.[89]

陰維脉은 少陽에서 厥陰에 이르며, 足少陰의 築賓에서 起하고, 足太陰의 腹哀, 大橫穴, 足太陰과 足厥陰의 府舍,[90] 期門穴, 任脈과 天突, 廉泉穴에서 교회하며,[91] 交會穴은 지막(脂膜)으로 장부와 연계가 되어 있으며,[92] 지막은 육음의 사기가 내외로 전달되는 통로이다.

腎의 少陽(水中之陽 ; ☲ 離卦, 物象 ; 휘발유 등)은 膀胱으로 하여금 大·小腸에 진액을 공급하고,[93] 肝血이 心包로 흘러 들어가게 하고,[94] 心包는 脉의 陰氣와 연계되어 영혈(營血)의 유주를 조절한다.[95] 만약, 사기가 삼음경과 영혈의 순환을 조절하는 음유맥과 관계가 되면 苦心腹痛이 포함된 병증이 발병한다.[96]

음유맥의 병증은 『난경·28난』에서 腹痛과 心痛의 증상이라 하였고, 소음(少陰)이 내부(裏)에서 신정(腎精)이 말라서 없어져(衰竭) 음이 사라지고 기가 궐역(厥逆)하여 심복통(心腹痛)의 병증이 나타난다.[97][98] 그리고, 육경에 만일(滿溢)하는 사기는 내부가 허하면 기경으로 일입(溢入)을 한다.[99][100]

만약, 사기가 음유맥으로 유입(流入)되면 기구의 구도에서 족소양이 배속되는 尺浮按에서 족궐음이 배속되는 寸沈按의 사하진(斜下診)에서 음유맥의 병리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기구구도맥에서 寸口의 寸에는 복부의 내부에 한결(寒結)이 원인이 되면 수궐음경의 방향으로 맥의 방향이 변화하는 內曲 혹 신체에서 음다양소(陰多陽少)가 되면 寸의 沈按에서 근하골상(筋下骨上)에서 느껴지는 甚沈한 맥상(伏脈과 유사)이 나타난다.[101] 焦[102]는 右寸裏斜 혹 寸弱尺盛한 脉狀

88) 王士雄. 溫熱經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134.
89)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讀醫隨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81.
90) 皇甫謐 編集. 黃龍祥 整理. 鍼灸甲乙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2. p.83. "「腹自期門上直兩乳夾不容兩旁各一寸五分下行至冲門凡十四穴第二十四穴第二十二」… 府舍, 在復結下三寸, 足太陰, 陰維, 厥陰之會. 此脉上下入腹絡胸, 結心肺, 從脅上至肩, 此太陰郤, 三陰陽明支別. 刺入七分, 灸五壯"
91)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24.
92) 焦會元 編輯. 古法新解會元鍼灸學. 北京. 泰山堂書莊. 中華民國二十六年. pp.137-138. "… 府舍穴, 連繫任脈. 絡通肝心, … 大橫. 絡系帶脈, 連繫腸部脂膜, … 腹哀穴, 連繫脾胃之脂膜 … 期門穴 (取期門依此因從衝氣定) 斜穿胸之結喉下. 會任脈於天突穴. 上結廉泉 …
93) 朴一洪, 姜鎭春, 李海永 共註譯. 譯註黃帝內經素問. 서울. 松山出版社. 1982. p.131.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 焉. 氣化則能出 : … 爲津液藏焉, 而**充大小二腸之用**, 有上竅而無下竅受三焦決瀆之水而藏之, 不敢自泄 … 服於肺相之令而 放小便, 服於心君之命而釀汗 … 此太陽寒水, 爲巨陽而, **主寒熱**, 爲州都之官也."
94) 劉孔藤 主編, 陸汎, 周然密, 錢小蓮 編者. 經絡辨證概論. 廈門. 廈門大學出版社. 1988. pp.111-113. "奇經爲病, 脉之症候, 病在陰維脉." 『靈樞·經脉』 "腎足少陰之脉, 其直者, **從腎上貫肝隔**, 入肺中 … **從肺出絡心, 注胸中** … 是動則病 … 目眩眩無所見, … 是爲**骨厥**. 是**主腎**所生病者 …"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脉 … **起于胸中**, 出屬心包絡, 下膈, 歷絡三焦, … 是**主脉**所生病者"
95) 羅東逸 著. 龔慶元 輯. 珍本醫書集成·內經博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p.42. "「脉法部」 … **脉**爲人之神, … 其**根原有二**. **一出**于中焦之谷神, … **一起**于太衝, 以出少陰腎, 下滙血海于厥陰 …"
96) 周孔四 著, 余茂基 注釋. 周氏經絡大全注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8. p.31. "獨陰維始于腎之築賓, 中會于脾之大橫, 終及于肝之期門, 寧不維手三陰乎? 盖手三陰根起于任, 陰維既會任于天突, 廉泉, 則**維心, 肺, 包絡之根本**矣."
97) 羅東逸 著. 龔慶元 輯. 珍本醫書集成·內經博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p.57. "… 陰維爲病, 泌少陰竭于裏, 而見究陰之厥逆, 苦心痛. …
98) 黃英志 主編. 葉天士醫學全書·臨證指南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287. "郭(二四) 産後下元陰分先傷, 而奇經八脈皆麗于下, **肝腎怯不固, 八脉咸失職司**, 經旨謂陽維脈苦寒熱, 陰維脉苦心痛. 下損及胃, 食物日減"
99) 黃英志 主編. 葉天士醫學全書·臨證指南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287. "陸 ; 産後邪甚入陰, 氣血膠結, 遂唯瘕疝之形. 身體傴僂, 乃奇脉綱維不用. 充形通絡可效 …"
100) 黃英志 主編. 葉天士醫學全書·臨證指南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293. "陳 ; 懷妊三月小産, 半年不復. 寒從背起, 熱起心胸, 經水後期不爽, 帶下脉脉不斷, 脊膂腰髀痿墜酸疼, 膝骨脛以冷無力. 由冲任督帶傷損, 致陰陽維蹻不用 …"
101)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脉簡補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81. "「脉有內曲外曲」 : 寒結之, 則脉形內曲"
102) 焦會元 編輯. 古法新解會元鍼灸學. 北京. 泰山堂書莊. 中華民國二十六年. pp.137-138.

을 음유맥의 기본 맥상으로 인식하였다.

## 3. 考察

奇經八脈은 十二經脈의 순환에 約束되어 있으며,[103][104] 홍수가 나면 구거(溝渠)가 넘쳐서 호택(湖澤)으로 유입하는 것과 정경의 사기가 기경으로 만일(滿溢)하는 것은 상응한다.[105] 그러므로, 상한의 즉병(卽病 ; 즉시 발병)과 하초복한(下焦伏寒)[106] 및 온병의 즉병(卽病)과 복사(伏邪)론은 기경팔맥과 밀접한 연계가 있는 의론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기경의 병증은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정경(正經)과 락맥(絡脈)의 질병이 유입(流入)되어 발현되고, 전경(傳經)이나 유주(流注)에 의한 전변(轉變)이 없다. 이런 연유로 기경팔맥(奇經八脉)의 병증은 포괄적으로 설정되었다.[107]

한편, 기경팔맥 중 음·양유맥은 신기가 성(盛)하면 신체를 유락(維絡)하는 음양(陰陽)의 그물망 역할을 하며,[108] 기혈의 溢蓄을 통하여 성쇠를 조절하는 작용을 하며, 직접적으로 순환에 참여를 하지는 않는다.[109]

또한, 음·양유맥은 그물망을 형성하여 유속(維續)、호위(護衛)、포거(包擧) 작용을 한다. 이런 까닭에 양유맥은 표의 피부에서 사기를 방어하여 四肢가 分懈가 되지 않게 관절과 마디를 묶어서 連結을 하고,[110] 음유맥은 내부의 표에서 사기를 방어하여 음식과 藥餌을 섭취하여 腹內으로 들어가게 하는 작용을 한다.[111]

『黃帝內經太素』 卷10 「經脈之三」에서 陽維는 陽維之脈의 腰痛과 陰維는 飛陽之脈의 腰痛의 증상은 腎과 연관되어 있으며,[112][113][114] 『난경·28난』에서 양유맥은 苦寒熱, 음유맥은 苦心腹痛은 『난경·8난』에 있는 腎間動氣의 의론을 내포하는 증후군으로 생각이 된다.[115][116]

---

103) 張景岳. 張景岳醫學全書·景岳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22. "「脉神章上」; 五十營篇曰 ; 天周二十八宿, 人經二十八脉, 周身十六丈二尺, 以應二十八宿."

104) 羅東逸 著. 襲慶元 輯. 珍本醫書集成·內經博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p.40. "所謂經絡者, … 統內外左右上下行無滯, 如江河之流, 而爲日夜五十營者, 斯爲經."

105) 羅東逸 著. 襲慶元 輯. 珍本醫書集成·內經博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p. 56. "又有**八奇經見病之奇恒者** … 所得之病, 卽十二經之恒常, 而十二經每與之俱病"

106)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傷寒補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208-209.「傷寒重病多是下焦伏寒」

107) 葉霖 著. 吳考槃 点校.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51. "**陽維爲病苦寒熱, 陰維爲病苦心痛.** 陽蹻爲病, 陽緩而陰急, 陰蹻爲病, 陰緩而陽急. 冲之爲病, 氣逆而裏急. 督之爲病, 脊强而厥. 任之爲病, 苦結, 男子爲七疝, 女子爲瘕聚"

108) 羅東逸 著. 襲慶元 輯. 珍本醫書集成·內經博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p. 56. "陰陽二維, 別爲部于陰陽之會, 而主持之內外"

109)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24. "維脉的分布竝不具上下環周的流注關係"

110) 윤기령, 백유상, 장우창, 정창현. 維脉의 개념과 임상활용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9. 32(1). p.156. "… 유맥의 교회혈은 … 교회하는 양경들과 음경들의 연결을 강화시키고, 평형유지, 조절의 역할을 한다."

111) 周孔四 著, 余茂基 注釋. 周氏經絡大全注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8. p.37. "又懼肢分節懈也. 爲二維以設, 續節連而不能隔碍飮食, 藥餌入腹也."

112) 李克光, 鄭孝昌 主編, 黃帝內經太素校注 (上).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5. pp.281-282. "음양유맥은 『소문·자요통론』陽維之脉令人腰痛 …, 飛陽之脉(陰維之脉)令人腰痛 … 與陰維之會" 의 文句가 있으며, 『난경·이십구난』 음양유맥의 병증과는 차이가 있으며,『소문·맥요정미론』"腰者腎之府, 轉搖不能, 腎將憊矣."라고 하였다.

113) 吳昆. 黃帝內經素問吳注評釋. 北京. 中國古籍出版社. 北京. 1988. p.229. "陽維, 奇經之一脈也. 陽脉相維交會之處, 名曰陽維. 腦, 足腹也. … 飛陽, 足太陽之脉別走少陰者. 少陰之脉, 從肺出絡心, 故令悲. 腎志恐, 少陰者, 腎也, 故令恐. 陰維, 奇經脉也."

114) 黃英志 主編. 葉天士醫學全書·種福堂公選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p.359-360. "「虛勞 ; 奇脈陽虛
腰痛」孫二八 ; 繞腰近臍, 久痛若空, 秋深層冬. 四肢不暖. 此由幼年精未充旺早泄, 旣損難復, **八脉失司, 是陰傷及陽, 若須達及奇經**, 可冀漸效.…"

115) 襲莊元 輯. 熊笏 著. 三三醫書·卷二·中風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737. "「論衛氣」: 衛氣又名人氣以其綱維群動, 爲知覺運動者也, 又名陽氣, 以其溫陽一身也 … **衛氣之根. 根在于腎**,『難經』稱謂腎間動氣, 後世稱爲丹田眞陽. 卽此衛氣. … 則曰三焦, 所以行津化液也. 凡大小二便之開合, 皆三焦衛氣之所司,『難經』謂之原氣."

116) 黃英志 主編. 葉天士醫學全書·臨證指南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287. "陳(二八) 寒熱時作, 經歲不痊, 此産後病起, 陽維爲病明矣."

한편, 『맥경』 권10 「수검도」에서 양유는 “肌肉痺痒 … 失音, 癲疾”이라 하고、음유는 “僵仆失音, 肌肉淫痒痺, 汗出惡風”이라 하였으니, 『난경』의 음·양유맥의 병증과 차이가 있다.[117] 이에 대하여 羅[118]는 신기의 성쇠와 연관하여 설명하였다.

『脈訣彙辯』에는 “양유의 병증을 寒熱眩仆, 음유의 병증을 胸脇刺痛”이라 하여 부위와 증상을 구분하여 위기 및 영기의 성쇠에 따른 순환과 연계하여 기술하였고,[119][120] 『內經博議』에서는 영·위기의 생성의 근원인 腎陰과 腎陽의 盛衰로 서술하고 있다.[121][122]

그리고, 신은 음양의 뿌리(根柢)가 되며, 신의 수화(水火)는 少陽과 少陰으로 發顯되며, 陽을 이어서 연결하는 것(維絡)은 少陰에서 시작하며, 陰을 이어서 연결하는 것(維絡)은 少陽부터 시작한다.[123][124] 소음과 소양은 음양의 호근(互根)이 되고, 전지(轉至)와 전변(轉變)의 중추(中樞)로서 작용한다.

『醫原·樞機論』에는 “… 신은 음양의 근본이 되며 … 소양과 소음은 開闔樞에서 開闔의 중심(樞)이 되며,[125] … 소양에서 태양, 태양에서 양명으로 전지(轉至: 유동하여 변화)하고, … 소음에서 태음, 태음에서 궐음으로 전지(轉至)한다.”라고 하여 “소양과 소음의 추기(樞機)는 신과 연계되어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126][127]

腎의 水火에 의해 발휘되는 膽과 脉은 相火를 조절하여 정경과 기경의 사이에서 정기의 貯藏과 병사의 轉移를 조절하는 奇恒之府의 작용으로 균형을 유지한다.[128][129]

117) 王叔和 著. 福州市人民病院 校釋. 脈經校釋.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9. pp.649-650.

118) 羅東逸 著. 襲慶元 輯. 珍本醫書集成·內經博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p.57. “… 陽維苦肌肉痺痒者, 陽衰則衛不行而氣滯, 氣滯則陽不能率先, 而陰行遲, 故痺痒. 又令人身如蟲行, 如是則陽氣不攝, 而陰氣獨滯, 故皮膚痛. 陽衰于本起, 故下部不仁, 幷出汗而寒. 此陽之不固不至, 而營亦不行, 是以陰襲之也. 他若顫仆羊鳴, 手足相引者, 陽去則經絡凝澁, 停異時陰襲之, 則經沮而筋攣,故迫而相引. 又沮其道, 故聲溢而不能發, 若羊鳴也.…

119) 李延昰 輯著. 脈訣彙辯.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106-107. “陽維維於一身之陽, 陽主衛, 主氣, 主表, 病則不能維於陽, 是陽無護持, 而衛氣亦困之不固, 故在表則生寒熱 … 本脉之維於頭目手足頸項肩背諸陽, 無一不到, 其脉不營, 則不能維. 在頭目無維則眩, 在頸項肩背無維則僵, 在手足無維則仆矣.”

120) 李延昰 輯著. 脈訣彙辯.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106-107. “陰維爲病心痛, 胸腹刺築者, 以陰維維絡一身之陰, 陰主營, 主裏, 不能維陰, 則陰無約束, 而營氣困之不和, 故在裏則心痛. 又營主血, 血合心, 故心痛也. … 本脉之維於胸腹諸陰, 無一不到, 其脉不營則不能維.在胸腹失所維, 則動築而刺痛.”

121) 羅東逸 著. 襲慶元 輯. 珍本醫書集成·內經博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p.57. “盖唯本陽本陰有衰耗之氣, 則必至總見于諸陽諸陰 … 至若陰維之不維, 是陰不副陽, 而不能爲陽守, 則陽離而不入于陰. 重陰充塞隧道, 九竅皆沈, 故亦病癲癎僵仆羊鳴, 或失音也. 若肌肉痺痒, 汗出惡風, 似若稍輕于前症, 要亦營虛無陽而畏寒, 衛亦不能爲之衛, 故陰維之虛爲陰虛, 而實亦無陽之虛, 特少異于陽維云耳.”

122) 羅東逸 著. 襲慶元 輯. 珍本醫書集成·內經博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p.57. “若陰陽不能相維, 是爲陰陽兩虛, 其症心腎不交, 水火兩乖, 神明無所主, 故悵然失志, 溶溶不能自收持, 無水火散煥, 無相養之道也.”

123) 沈金鰲 撰. 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171.

124) 葉霖 著. 吳考槃 点校.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51. “… 然而能爲維者 … 必從乎陰陽之根底, 具盛氣之發, 而後能維. … 陰爲陽根也. … 陽爲陰致也 …”

125) 葉子雨 撰著. 中國醫學大成(四)·溫病分冊·伏氣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509. “六氣中寒濕偏于闔, 燥火偏于開, 風與暑有開有闔, 風兼于寒濕則闔, 兼于燥火則開, 暑氣宜分別熱多濕多, 偏于熱者多開, 偏于濕者多闔”

126) 石芾南 撰輯. 主審 朱世增. 主編 邢玉瑞. 醫原. 上海. 上海浦江教育出版社. 2012. pp.17-19. “「樞機論」: 三陰三陽, 有樞機焉. 樞者, 如門戶之樞, 乃陰陽開闔之轉機也. … 一曰少陰爲樞, 一曰少陽爲樞 … 手少陰屬心, 足少陰屬腎. … 故少陰爲轉陽至陰之機竅, 陰之樞也, 由少陰而太陰, 由太陰而厥陰. … 手少陽屬三焦, 足少陽屬膽. … 故少陽爲轉陰至陽機栝, 陽之樞也. 由少陽而太陽, 由太陽而陽明 … 若其樞一有不利, 則出入之機停, 出入機停, 則開闔機廢 … 厥陰爲陰之極, 陰極生陽, 而轉陰入于陽, 陽之初生爲少陽 … 陽明爲陽之極, 陽極則陰生, 而陽又轉入于陰 …”

127) 石芾南 撰輯. 主審 朱世增. 主編 邢玉瑞. 醫原. 上海. 上海浦江教育出版社. 2012. pp.17-19. “「樞機論」: … 病先天則從腎氣, 病後天則從脾胃氣. … 龍火起而風火, 雷火, 燥火亦相繼而起, 則一身無非火矣. 夫此火之來. 總由于樞之不利, 火卽陽氣外越, 而不能依附于陰者也. … 法當滋腎之陰, 納腎之陽, 盖腎之水火互根之臟, 腎陰足而後水濟火, 腎陽固而後氣歸精也 ; 法當養肝之血, 達膽之氣, 皆肝膽爲東方震巽之木, 木之陰液不可耗, 木之生氣不可伐也. 知少陰, 少陽之樞, 而治法可悟矣”

128) 羅東逸 著. 襲慶元 輯. 珍本醫書集成·內經博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p.56. “… 名曰奇恒之府, … 藏府之孤陰, 不倫于恒等, 有部位之關要, 不涉于衆流”

129) 朴一洪, 姜鎭春, 李海永 共註譯. 譯註黃帝內經素問. 서울. 松山出版社. 1982. p.127. “「靈蘭秘傳論」… 心包

특히, 膻은 정경의 少陽經과 기항지부의 두 종류의 작용이 있다.[130] 그리고 『소문』「육절장상론」에서 "… 凡十一藏取決于膻也." 이라 하여 담(膻)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31]

또한 『영추』「본수」에는 "腎合膀胱 … 少陽屬腎, 腎上連肺, 故將兩藏" 이라 하여 양장(兩藏)으로 膀胱과 三焦의 작용이 있다고 하였고,[132][133] 또한 『영추』「본장」에서 "腎合三焦膀胱, 三焦膀胱者, 腠理毫毛其應."이라 하여 신, 삼초, 방광은 피부의 주리(腠理)와 털(毫毛)까지 연계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三焦는 六經의 氣血이 오장육부의 바다(海)인 위장으로 넘치지 않도록 膀胱이 진액의 저장과 공급을 담당하게 하고, 땀구멍(汗孔)으로 氣化하는 땀(汗), 대·소변을 통하여 조절한다.[134][135] 이는 구멍(孔竅)의 개합(開合)을 담당하는 위기의 총관리자(總領)인 양유맥은 삼양경과, 음유맥은 삼음경과 연계하여 정경과 기경의 평형을 조절한다.[136]

劉는 "음정(陰精)의 허손(虛損)으로 인하여 기경은 병이 되며, 奇恒之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였다.[137] 『소문』「오장별론」에서 언급된 기항지부(奇恒之府) 즉 腦、髓、骨、脉、膻、女子胞는 시간(時間)의 제약을 받지 않고,[138][139][140] 연관된 장부와 正經, 奇經의 사이에서 正氣와 邪氣가 저장(貯藏)의 축적(蓄積) 및 전이(轉移)의 만일(滿溢)하는 기능과 장소의 역할이 있다.

한편, 명문(命門)의 신간동기(腎間動氣) 즉 원기

---

之職, 唯在護心而, 使心火勿動, 心火動則 藏府之五火皆動而五藏自焚. …"

130) 羅東逸 著. 裵慶元 輯. 珍本醫書集成·內經博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p.56. "「五藏別論」曰 ; 腦, 髓, 骨, 脉, 膻, 女子胞, 此六者, 地氣之所生也, 皆藏于陰而象于地, 故藏而不瀉, 名曰奇恒之府. 又曰; 魄門爲五臟使. 如前爲七, 而唯膻屬少陽, 特曰中精之府. 此七者之有病, 其受病不與藏府之主時者同."

131) 朴一洪, 姜鎭春, 李海永 共註譯. 譯註黃帝內經素問. 서울. 松山出版社. 1982. p.126. "「靈蘭秘傳論」 少陽爲相火, 相君火, 膻足少陽而, 居肝肺文武官之中, 使肝肺不相干 … 故十二藏皆取於膻, 諸藏所欲, 君必從之而, 膻不許之則, 藏不敢動 …"

132) 葉霖 著. 吳考槃 点校.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65. "「三十九難」 … 按 … 經言腎將兩藏者, 以腎兼主水火二氣也, 少陽三焦之脉, 散于胸中, 而腎脉亦上連于肺, 肺主天主氣, 三焦之下兪屬于膀胱, 而膀胱爲津液之府, 乃腎之合, 三焦主相火, 生于腎而遊行于上下, 膀胱主水, 亦生于腎, 皆以水藏而領水府也. 然膀胱之氣, 化津液化汗, 三焦相火蒸騰所致. …『靈樞·本藏篇』曰 ; 腎合三焦膀胱, 三焦膀胱者, 腠理毫毛其應, 卽此義也. … 此腎雖兼將兩藏, 實陰陽相貫, 水火互交, 幷主藏精, 而爲生氣之原 …"

133) 葉霖 著. 吳考槃 点校.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51, pp.44-45. "「二十五難」 按 … 手少陽三焦, 爲水中之陽, 是爲相火. 經言**少陽屬腎者, 屬于腎中命門也. 命門卽腎系, 由腎系下生脂膜, 爲三焦之根.** 西醫所謂腹包膜, 腹內府統膜者, 是也. 其膜之原腎系之…網羅縱橫, 是由 彼藏行于此藏, 以通氣血者也. 凡諸連網膜油, 皆三焦之物也.…"

134) 裵莊元 輯. 熊笏 著. 三三醫書·卷二·中風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737. "「論衛氣」 : 衛氣又名人氣以其網維群動, 爲知覺運動者也, 又名陽氣, 以其溫陽一身也 … 衛氣之根. 根在于腎, 『難經』稱謂**腎間動氣,後世稱爲丹田眞陽. 卽此衛氣.** … 其一曰, 間行于六腑則水谷化. 從**下焦以上合于宗氣**, 應于胃則主納, 應于膻則主決, 應于小腸則主腐化, 應于大腸則主傳導, 應于膀胱則主滲利總以名之, 則曰三焦, 所以行津化液也. 凡大小二便之開合, 皆**三焦衛氣之所司**, 『難經』謂之**原氣**."

135) 朴一洪, 姜鎭春, 李海永 共註譯. 譯註黃帝內經素問.서울. 松山出版社. 1982. p.131. "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 ; 手少陽三焦, 火之盛者而**遊行肺腎之間, 而暖氣血** … 上焦助心肺而運氣血, 中焦助脾胃而消磨水谷, 下焦助肝腎而藏精血, 上中下焦, 皆以決瀆爲己任, 掃除藏府之穢濁 放出於下之二竅, 六經之川而導水, 泛腸胃之海而補漏故 藏府賴而安之, 無怫鬱積滯癃閉之患. 然火動多變外感內傷, 易鬱易散故, 上中下體之浮腫, 皆因三焦之鬱, 上中下滯氣血之脫, 皆因三焦之耗散 …"

136) 葉霖 著. 吳考槃 点校.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51. "「二十八難」 … 按 … 陽維主皮膚之氣, 行身之表. 陰維主脂膜之氣, 行身之裏, 故病寒熱內痛也. … 故二脉乃孫絡中氣血入于絡脉, 爲衛氣綱領也."

137) 劉孔藤 主編, 陸汎, 周然密, 錢小蓮 編者. 經絡辨證概論. 廈門. 廈門大學出版社. 1988. pp.111-113. "因奇恒之府都貯藏陰精的機關, 故**奇經病變每累及奇恒之府**"

138) 羅東逸 著. 裵慶元 輯. 珍本醫書集成·內經博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p.56. "… 名曰奇恒之府, 又曰 ; 魄門爲五臟使. 與前爲七, 而唯膻屬少陽, 特曰中精(正)之府. 此七者爲病, 其受病不與**藏府之主時**者同 …"

139) 羅東逸 著. 裵慶元 輯. 珍本醫書集成·內經博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p.56. "… 名曰奇恒之府, … 藏府之孤陰, 不倫于恒等, 有部位之關要, 不涉于衆流"

140) 朴一洪, 姜鎭春, 李海永 共註譯. 譯註黃帝內經素問.서울. 松山出版社. 1982. pp.186-187. "腦爲髓海, 髓爲骨之精而, 腎爲足少陰, 象地, 膻爲足少陽而主骨, 脉屬于心而主血, 女子胞屬任脈而受氣, 此六者, 故曰地氣之所生也, 所藏者, 水之精故曰藏於陰, 曰奇恒之府者, 異於正常六府也, 夫六府者, 藏物而瀉, 此藏氣而不瀉固, 異於正常之六府也."

(原氣)[141]는 사종류(四種類)의 방향으로 작용한다. … 수궐음경(手厥陰經)이 심포락(心包絡)에 도달하여 心에 이르러 군화(君火)의 운용을 도운다. 그리고 수소양삼초경은 身으로 흘러가서 기육(肌肉)을 따뜻하게 하고, 주리(腠理)를 통하게 한다. … 수소양(手少陽)은 삼초(三焦)의 經으로 명문(命門)과 체용(體用)의 관계로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142]

腎의 少陰 (火中之陰) 즉 三焦는 膻, 肺에 溫暖한 和氣를 공급하고, 膻은 骨의 陽氣와 연계되고, 肺主氣(治節)를 통하여 삼양경의 위기의 순행을 보좌하고, 사기가 한열을 조절하는 양유맥과 연계되면 고한열(苦寒熱)을 동반하는 병증이 나타난다.

腎의 少陽(水中之陽) 즉 膀胱은 大·小腸에 진액을 공급하고, 肝血이 心包로 흘러가게 하고, 心包는 脉의 陰氣와 연계되며, 사기가 삼음경과 영혈의 순환을 조절하는 음유맥과 관계가 되면 苦心腹痛을 동반하는 병증이 나타난다.

그리고, 외감 및 내상의 寒熱의 傳表는 태양에서 시작하여 소양에서 끝나고 傳裏는 소음에서 시작하여 궐음에서 끝나며,[143] 양명과 태음이 중간에서 六經轉變의 중추적인 작용을 한다.[144] 육경에 滿溢하는 경우 내부가 허(虛)하면 사기는 기경으로 溢入하여 축적되며 기경의 병증을 형성한다.[145][146][147]

『奇經八脈考』에서 "양유맥은 수족의 삼양경과 상호간에 有絡하고, 寒熱證은 始終으로 少陽과 太陽의 二經과 연계되어 있다. 음유맥은 삼음과 교회하고 임맥으로 귀속되며, 心痛은 임맥의 上衝과 소음과 궐음의 二經에 속한다."라고 하였다.[148]

이상을 보면, 음·양유맥의 병증은 신기의 성쇠와 연계된 내외의 음양과 기혈을 조절하는 기능에 이상이 있는 증상으로 보이며, 『난경』을 저작한 先賢들은 양유맥은 苦寒熱의 술어로, 음유맥은 苦心腹痛의 술어로서 『난경』을 관통하는 신간동기의 의론을 함축(含蓄)한 뜻으로 보인다.

그리고, 『診宗三昧』에서 "경락에 熱滿하면 奇經으로 溢入하며, 『상한론』의 삼양병은 양유맥으로 부터 轉次되고, 삼음병은 음유맥으로 부터 轉次된다."라고 하였다.[149]

음·양유맥은 삼음경과 삼양경으로 한열을 轉移시키는 작용을 하며,[150] 사기가 손락(孫絡)의 위기를

---

141) 龔莊元 輯. 熊笏 著. 三三醫書·卷二·中風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737. "「論衛氣」: 衛氣又名人氣以其綱維群動, 爲知覺運動者也, 又名陽氣, 以其溫陽一身也 … **衛氣之根. 根在于腎,『難經』稱謂腎間動氣**, 後世稱爲丹田眞陽. 卽此衛氣. … 總以名之, 則曰三焦, 所以行津化液也. 凡大小二便之開合, 皆三焦衛氣之所司, **『難經』謂之原氣.**"

142)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脉簡補議·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46. "「命門三焦說」: 徐靈胎以冲脉之根爲命門之處, 此卽腎間動氣之義也. … 其氣貫陰陽, 徹表裏, 而**分爲四隧** ; 一注于太冲, **達于五臟六腑**, 五臟六腑各有脉系于太衝之脉, 以受命門之氣也. **一散于臟腑之外**, 空廓之處, 充周于上中下之三焦也. **一由手厥陰之經達于包絡**, 以致于心, 助君火之運用也 ; **一由手少陽之經行于身**, 以溫肌肉, 通腠理也. 其積于三焦者 亦滲溢于外, 以行肌肉腠理, 如手少陽同氣同用. … 故卽以手少陽爲三焦之經, 此命門形氣體用之大義也."

143) 『소문·음양이합론』에 의거한 인체의 경락배속은 태양경(배면)과 소양경(측면)이 인접하고, 소음경(내측에서 태양경쪽으로 근접)과 궐음경(인체의 내쪽의 소음과 태음의 중간에 위치)이 인접하고 있다.

144) 葉子雨 撰著. 中國醫學大成(四)·溫病分冊·伏氣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509. "「解三」: 緣太陽爲傳表之始, 厥陰爲傳裏之終, 少陽爲傳表之終, 少陰爲傳裏之始, 自終而始, 自始而終, 六經皆遍, 則陽明太陰爭見, 亦包括于中矣."

145)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脉簡補議·周學海醫學全書.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72.「奇經八脈体用病機治法」"… 陰陽不和, 開闔不利, 上下不暢, 表裏不通, 則二蹻, 二維傷矣."

146) 黃英志 主編. 葉天士醫學全書·臨證指南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289. "某 ; 産後十年有餘, 病發必斗垂脊痛, 椎尼氣墜, 心痛冷汗. **此督, 任氣乖, 蹻, 維皆不用, 是五液全涸** …"

147) 黃英志 主編. 葉天士醫學全書·臨證指南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293. "孔 ; 形外寒凜凜, 忽然轟熱, 腰膝墜脹, 帶下汗出. 由半産下焦之損, 致八脉失其擁護, 少腹不和. 通攝脉絡治之. …"

148)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19. "陽維之脉, 如手足三陽相維, 而足太陽, 少陽, 則始終相聯附者, 寒熱之症, 有二經有之, … 盖陰維之脉, 雖交三陰而行, 實與任脈同歸. 故心痛多屬少陰, 厥陰, 任脈之氣上冲而然.…

149) 張璐 著. 張成博, 歐陽兵 点校. 診宗三昧.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2. p.15. "奇經又十二經之約束, … 惟是經絡之熱滿, 勢泌溢于奇經, … 試推傷寒之邪, 皆從陽維而傳次三陽, 從陰維而傳次三陰, 未嘗循十二經次弟也."

150) 韓東錫. 東醫壽世保元注釋. 서울. 誠理會出版社. 1967. p.119. "「醫源論」:『傷寒論』六經病中太陽病證, 陽明病證 則少陽人少陰人太陰人病證均有之. 少陰人病證

손상시키면 락맥(絡脉)으로 流入되고, 營·衛氣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한다. 그리고 사기가 누적되어 마치 강의 바닥이 堆積되어 洪水가 나는 상황은 邪氣가 奇經으로 溢入하고 奇恒之府에도 영향을 미침에 비유할 수 있다.[151)152)153)]

이런 병리적인 상황이 되면 外因과 內因의 六淫 병리는 오장육부와 경락을 배속할 수 있는 『난경』의 기구육부맥(氣口六部脉)에서 진찰을 할 수 있고,[154)155)]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상맥(常脉)의 이십사맥(二十四脉)과 다른 특별한 형상의 맥상은 기구구도맥(氣口九道脉)에서 진맥할 수 있다. 그러므로 『診宗三昧』에서 "特異한 症狀 및 常脉과 差異가 있는 脉狀이 나타나면 氣口九道脉에서 진단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156)]

한편, 『소문』「거통론」편에서 寒氣가 小腸膜原에 溢入하여 積聚를 형성하는 논술이 있는데, 膜原은 인체에 있는 脂內의 膜이며, 脂膜은 외로는 경락과 내로는 장부와 연계가 되어 있다. 즉 막원은 인체의 內와 外를 연결하는 교차하는 경계(交界)의 장소로서 腎과 연계된 삼초의 작용으로 내에서 외로, 외에서 내로 도달한다.

그리고, 四時의 상한과 온병의 사기와 복사(伏邪)는 모두 膜原으로 귀속된다.[157)]

이런 연유로 『맥경』 권13 「遲疾長短雜脉」에서 대장에 풍한이 숨어서 머물러 있는 상황(伏留)과 소장의 지막에 열사가 맺혀 있는 상황인 熱結의 맥상 즉 대장과 소장의 氣化不利로 기구육부맥(氣口六部脉)의 촌부에 해당하는 心位에서 부산대(浮散大), 肺位의 부단삽(浮短澁)의 정상적인 맥상에서 병리적 현상을 표현하는 잡맥(雜脉)의 맥상이 기재되어 있다.[158)]

그리고, 사기의 종류에 따라서 경락의 開闔樞에 영향을 주고,[159)160)161)] 원기(原氣)에 영향을 미치는 六淫이 滿溢하여 음양유맥으로 유입되면 斜下, 斜上의 진맥에서 발현되는 맥상이 기구(氣口)의 구도맥(九道脉)에서 나타난다.[162)163)]

---

居多也. 三陰病證皆少陰人 病證也. 少陽病證은 卽少陽人病證也." : 體質的 素因에 따라서 六經轉變의 差異가 있는 四象人의 表裏八病理論을 記述하고 있다.

151) 李延昰 輯著. 脈訣彙辯.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pp.106-107. "陽維維於一身之陽, 陽主衛, 主氣, 主表 … 陰維維絡一身之陰, 陰主營, 主裏"

152) 張璐 著. 張成博, 歐陽兵 点校. 診宗三昧.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2. p.15. "… 惟是經絡之熱滿, 勢泌溢于奇經, …"

153) 黃英志 主編. 葉天士醫學全書·眉壽堂方案選存.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941. "産後下虛, 利後爲虐, 是營衛交損, … 經云 ; 陽維爲病苦寒熱."

154) 劉吉人 著述. 中國醫學大成(四)·溫病分冊·伏邪新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p.523-533. "「伏邪病名解」: 感六淫而卽發病者, 輕者謂之傷, 重者謂之中. 感六淫而不卽病, 過后方發者, 總謂之伏邪. … ." 六淫의 伏邪가 正經과 奇經으로 溢入하여 나타나는 病症, 脉狀, 治法을 記述하고 있음.

155) 葉子雨 撰著. 中國醫學大成(四)·溫病分冊·伏氣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509. "「解三」: 外因之熱在表, 始必見太陽之脉", 『傷寒論·傷寒例』의 六經受病에는 六經의 脉狀이 있으며, 太陽經, 少陰經의 提綱에 脉浮, 脉微細의 脉狀이 條文에 있음.

156) 張璐 著. 張成博, 歐陽兵 点校. 診宗三昧.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2. p.15. "「經絡」 :凡遇五癆七疝, 項痙强背, 發歇不時, 內外無定之證, 剛勁不倫, 殊異尋常之脉, 便于奇經求之."

157) 葉子雨 撰著. 中國醫學大成(四)·溫病分冊·伏氣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515. "六氣中寒濕偏于合, 燥火偏于開, 風與暑有開有闔, 風兼于寒濕則闔, 兼于燥火則開, 暑氣宜分別熱多濕多, 偏于熱者多開, 偏于濕者多闔. 治病之機. 但能體認六氣開闔之偏重, 則思過半矣."

158) 王叔和 著. 福州市人民病院 校釋.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40. "「遲疾長短雜脉第一十三」: 脉累累如貫珠不前至, 有風寒在大腸, 伏留不去. 脉累累中止不至, 寸口轐, 結熱在小腸膜中, 伏留不去"

159) 羅東逸 著. 襲慶元 輯. 珍本醫書集成·內經博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pp.64-65. "「達病部上·虛實第二」凡根本虛實, 與邪入虛實, 莫不從此辨治"

160) 焦會元 編輯. 古法新解會元鍼灸學. 北京. 泰山堂書莊. 中華民國二十六年. pp.146-147. "「人身臟腑十二經根結標本與施術氣血流行通論」 ; 足太陰脾經 … 黃帝云開闔樞, 一通關竅. 舒經絡. 二養精華, 三靈通關竅開廣土地以肥肌肉."이라 하여 脾를 중심으로 開闔樞의 意義를 說明함.

161)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脉簡補議·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72.「奇經八脉体用病機治法」"督脉爲開, 任脉爲闔, 二蹻爲樞 … 冲脉爲開, 帶脉爲闔, 二維爲樞 … 此則**經無明文**, 以意逆而得之. … 陰陽不和, 開闔不利, 上下不暢, 表裏不通, 則二蹻, 二維傷矣."

162) 張璐 著. 張成博, 歐陽兵 点校. 診宗三昧.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2. pp.14-15. "… 盖經受寒而發熱, 絡受熱邪而轉次, 溢入于奇經矣."

163) 潘楫 著. 医灯續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p.287-288. "『難經·二十八難』曰 ; 人脉隆盛, 入于八脉而不環周之內, 故平和不病, 則不見也. 其脉曰浮, 曰牢,

만약, 사기가 二維脈으로 유입되어 나타나는 양유맥의 맥상으로 左寸外斜 혹 寸浮尺弱한 맥상을 사상진(斜上診)에서 진후(診候) 할 수 있고, 음유맥의 맥상으로 右寸裏斜 혹 寸弱尺盛한 맥상을 사하진(斜下診)으로 진단(診斷)을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사진법(斜診法)은 평상의 맥진에서 기의 升降强弱과 陰陽多少를 살피는 맥진의 방법이며,[164] 음·양유맥의 사진법은 精損으로 인한 下虛한 原氣의 성쇠와 연관된 寒熱 및 心腹痛의 증상이 동반되는 질환의 맥진법으로 정립할 수 있다.

## Ⅲ. 결론

기구구도맥에서 양유맥의 사상진(斜上診), 음유맥의 사하진(斜下診)을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신의 지막(脂膜)은 외로는 경락과 내로는 장부와 연계가 되어 있고, 막원(膜原)은 내외를 교계(交界)하고 연결하는 장소이며, 상한과 온병의 사기와 복사(伏邪)는 모두 막원을 거쳐 내외로 도달한다.

2. 육음(六淫)의 종류에 따라서 경락의 개합추(開闔樞)에 영향을 주고 기능 실조가 된다. 사기가 음·양유맥으로 유입되면 기구구도맥의 사하진(斜下診), 사상진(斜上診)에서 나타나는 二維脉의 맥상로서 음·양유맥의 병리적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3. 양유맥의 맥진은 기구의 구도에서 척(尺)의 침안(沈按)의 족소음에서 촌의 부안(浮按)의 족태양까지 사상(斜上)하여 진맥하며, 사상진(斜上診)은 복부 내부에 열결(熱結)이 있으면 수양명경의 합곡혈(合谷穴) 방향으로 맥의 방향이 변경되는 외곡(外曲)과 신체에 양다음소(陽多陰少)가 되면 촌에서 평상의 부맥(浮脉) 보다 더욱더 피부에서 느껴지는 부(浮)한 심부(甚浮)한 맥상이 드러난다.

4. 음유맥의 맥진은 기구의 구도에서 척(尺)의 부안(浮按)의 족소양에서 촌의 침안(沈按)의 족궐음으로 사하(斜下)하여 진맥하며, 사하진(斜下診)은 한결(寒結)이 복부의 내부에 있으면 수궐음경의 노궁혈(勞宮穴) 방향으로 맥이 변경되는 내곡(內曲)과 신체에 음다양소(陰多陽少)가 되면 촌에서 평상의 침맥(沈脉)보다 더욱더 침(沈)한 근골부에서 느껴지는 심침(甚沈)한 맥상이 드러난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윤종화 교수 연구 기금 “한의학의 맥진법에 의거한 침구 및 처방을 병용하는 한의학적 근거 중심의 임상 치료법에 관한 연구”로 수행된 연구 결과입니다.

## Reference

<간행본>

1. 焦會元 編輯. 古法新解會元鍼灸學. 北京. 泰山堂書莊. 中華民國二十六年.
2. 韓東錫, 東醫壽世保元注釋, 서울, 誠理會出版社, 1967.
3. 葉霖 著. 吳考槃 点校.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4. 朴一洪, 姜鎭春, 李海永 共註譯. 譯註黃帝內經素問. 서울. 松山出版社. 1982.
5. 王叔和 著. 福州市人民病院 校釋. 脈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6. 劉孔藤 主編, 陸汎, 周然密, 錢小蓮 編者. 經絡辨證概論. 廈門. 廈門大學出版社. 1988.

---

曰緊, 曰左右彈, 曰斜上. 雖皆各因其陰陽道路呈象, 而脉象則俱似遺邪而實者.”

164)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脉簡補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48. “「脉有俯仰」: … 二維有病, 卽見其脉, 其實常診脉, 多用此法, 以審氣之升降强弱, …”

7. 吳昆. 黃帝內經素問吳注評釋. 北京. 中國古籍出版社. 北京. 1988.
8.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9. 李延昰 輯著. 脈訣彙辯.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1.
10. 沈金鰲 撰. 雜病源流犀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11. 李梴 編著. 新校編註醫學入門 上. 서울. 大星文化社. 1994.
12. 何夢瑤 撰. 鄧鐵濤 劉紀莎 點校. 醫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13. 吳有性 原著, 鄭重光補注. 溫疫論補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14. 王士雄. 溫熱經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15. 傅山 原著. 傅靑主女科新解. 北京. 學苑出版社. 1997.
16. 劉吉人 著述. 中國醫學大成(四)·溫病分冊·伏邪新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17. 葉子雨 撰著. 中國醫學大成(四)·溫病分冊·伏氣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18. 潘楫 著. 医灯續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19. 襲莊元 輯. 熊笏 著. 三三醫書·卷二·中風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20. 周孔四 著, 余茂基 注釋. 周氏經絡大全注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8.
21.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傷寒補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2.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脈簡補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3.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脉義簡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4. 周學海 著. 鄭洪新, 李敬林 主編. 周學海醫學全書·讀醫隨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5. 王肯堂 著. 陸拯 主編. 王肯堂醫學全書·醫學窮源集卷二.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6. 吳鞠通. 吳鞠通醫學全書·溫病條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7. 張景岳. 張景岳醫學全書·景岳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8. 黃英志 主編. 葉天士醫學全書·臨證指南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29. 黃英志 主編. 葉天士醫學全書·葉天士晚年方案眞本.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30. 黃英志 主編. 葉天士醫學全書·種福堂公選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31. 黃英志 主編. 葉天士醫學全書·眉壽堂方案選存.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32. 唐容川. 唐容川醫學全書·中西滙通醫經精義. 北京. 中國中醫學出版社. 2002.
33. 李克光, 鄭孝昌 主編, 黃帝內經太素校注(上).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5.
34. 楊繼州 著. 鍼灸大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8.
35. 王叔和 著. 福州市人民病院 校釋. 脈經校釋. 北京.人民衛生出版社. 2009.
36. 張璐 著. 張成博, 歐陽兵 点校. 診宗三昧.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12.
37. 羅東逸 著. 襲慶元 輯. 珍本醫書集成·內經博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38. 皇甫謐 編集. 黃龍祥 整理. 鍼灸甲乙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2.
39. 石芾南 撰輯. 主審 朱世增. 主編 邢玉瑞. 醫原. 上海. 上海浦江教育出版社. 2012.

<논문류>

1. 박찬열, 안병철, 최도영. 陰, 陽蹻脈과 陰, 陽維脈各經穴의 主治病症에 對한 文獻的 考察. 대한침구학회지. 1995. 12(2).
2. 양승정, 진천식, 조명래. 대맥 및 그 유주상 회합하는 경혈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1. 18(1).
3. 황정일, 이준범, 황민섭, 윤종화. 奇經八脈의 진단법인 氣口九道脈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5. 22(4).
4. 成振鏞, 李曉君, 郭霞珍. 奇經脈診法初探. 北

京中醫藥大學學報(中醫臨床版). 2010. 17(6).
5. 于志亮, 楊碩, 楊孝芳. “氣口九道脈”的溯源初探. 中西醫結合心血管病雜誌. 2018. 6(34).
6. 윤기령, 백유상, 장우창, 정창현. 維脉의 개념과 임상 활용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9. 32(1). http://dx.doi.org/10.14369/jkmc.2019.32.1.145
7. 呂致君, 許軍峰. 近10年帶脈臨床應用硏究進展. 湖南中醫雜誌. 2021
8. 박건우, 황민섭, 윤종화. 奇經八脈의 脈診法인 氣口九道脈에 나타난 彈脉의 의미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2. 35(1). https://doi.org/10.14369/jkmc.2022.35.1.033
9. 박건우, 황민섭. 윤종화. 氣口九道脉에서 寸部와 尺部에서 나타나는 左右彈脉에 關한 硏究. 한국의사학회지. 2023. 36(1). https://doi.org/10.15521/jkmh.2023.36.1.011
10. 이병욱, 윤홍걸, 황수경, 김기욱, 박건우, 황민섭, 윤종화. 氣口九道脈診에 임맥, 독맥, 충맥의 맥상에 관한 연구. 대한원전학회지. 2024. 37(2). https://doi.org/10.14369/jkmc.2024.37.2.031
11. 황수경, 이병욱, 황민섭, 김기욱, 윤종화. 氣口九道脈에서 양교맥, 대맥, 음교맥의 맥상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방제회지. 2024. 32(2). https://doi.org/10.14374/hfs.2024.32.2.193